

은혜와 진리소식

2024년 7월 21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88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사랑하는 제 가족이 예배를
귀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섭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안 숙 영 -

저는 결혼하기 전에 병을 앓는 큰아버지를 간호하기 위해 한동안 시골에 있는 큰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큰집 근처에 있는 군부대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중에 춘천에서 역시 군부대 교회를 다니던 지금의 제 남편이 저의 큰집 근처 부대에서 군 복무를 하게 되어 저희 두 사람이 같은 군부대 교회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남편은 제대한 후 학교에 다니고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편지를 주고받으며 교제를 이어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안양에 있어서 안양에서 신생활을 시작하여 은혜와진리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는 사랑과 성령 충만한 구역장님을 만나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구역장님은 제가 교구버스 운행 시간에 맞춰 어린 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오기가 힘들 거라며 주일 아침마다 저희 집 앞으로 오셔서 승용차로 저희를 태우고 다니셨습니다. 것처럼 제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전도하실 때에도 저를 데리고 다니시며 전도하는 즐거움과 전도의 열매를 보는 기쁨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수원으로 이사한 후에 저는 수원성전으로 출석을 하고, 남편은 여전히 안양성전으로 출석하여 정보통신교회에서 봉사하며 남성구역예배도 안양에서 드렸습니다. 남편은 안수집사 직분을 받고 저는 구역장 직분을 받아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구역과 교구에서 함께 기도할 때 구역장님들이 방언기도를 하는 것이 저는 몹시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구역장 기도회에서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하나님,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저도 은사를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 후 기도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여러 방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승진할 때가 되어 기대를 많이 하였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을 못 할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은 날이 마침 구역장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말을 들었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출근하는 남편에게 “아니,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요.”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당회장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여져 하나님을 앙망하며 남편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세미나가 끝나자마자 꺼 놓았던 핸드폰을 켜더니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나 승진했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사위원 등 회사 임원들이 회의 중에 남편을 특별 승진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특별승진은 전례가 없는 일로 하나님께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것처럼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출근한 남편에게 상사가 조용히 ‘높으신 분 중에 혹시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라면 어떻게 승진자 명단이 다 정해졌는데 추가로 특별히 승진을 할 수 있었는지’를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네,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남편이 대답하니 그 상사가 말하길, “자네가 믿는 그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라고 하였습니다.

국내외에서 불황이 지속되고 경기가 오래 침체되면서 우리나라 대기업에도 명예퇴직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회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 때 남편도 퇴직하였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아들을 비롯한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TV를 보다가 문득 머리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로 상품을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문을 받고 3개월의 숙성기간이 지나서 배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입금부터 해주고는 기다려 주었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며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또한 돌보아 주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재취업을 하고 또 개인사업도 시작하게 된 남편과 잘 성장하여 이제 직장생활을 하게 된 아이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예배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수요일에 예배에 참석하여 설교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데 “너의 다른 가족은 어떻게 할 건데...”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이들에게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예배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적극 권고하지 않고 이끌어주지 않은 잘못을 회개하였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3)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제가 밥을 먹으려고 하면

입덧을 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워서 병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병원, 저 병원 그리고 대학병원까지 다녀보아도 낫지 않았습니다. 병명조차 알 수가 없어서 더 답답했습니다. 먹지를 못하니 체중이 줄어들고 수시로 어지럽고 기운이 없어 활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자 주위의 구역장님들이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시며 매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런 증세가 있기 전에 친구 부부와 해외여행을 계획하였는데 취소하기가 쉽지 않고 일단 가보자고 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 이틀 전 저녁식사 자리에서 제가 기절을 했습니다. 병원 구급차가 오고, 깨어나서 보니 남편과 여러 사람이 저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여기저기 투어를 하느라 더 몸이 지치고 혈압이 많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대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휴가를 내서 저를 병원에 데려가며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습니다. 토요일에 아들의 간호를 받는 중에 “너희 가족은 어떻게 할 건데...”라고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아들에게 예배를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강하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너, 어떻게 할래?”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아들이 “저, 내일 약속 취소하고 꼭 교회에 갈게요.”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의 온 몸이 힘이 솟아났습니다.

다음날 주일 아침에 제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교회에 가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거의 두 달 동안 제대로 못 먹었던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연신 “엄마, 괜찮아요?”라고 물었습니다. 출장을 다녀온 남편에게도 수요일에 성령님이 저를 책망하시며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전했다니 남편도 각성하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건강회복에 좋다는 음식을 사주길래 그 자리에서 다 먹었더니 남편 역시 괜찮냐며 놀라워했습니다. 시집간 딸의 가족도 이러한 소식을 들은 후 충실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저희 가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브리서 10:25)

바쁘다는 핑계로, 또 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던 저의 가족이 돌이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중심의 생활을 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전도사님, 구역장님들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역공과 제2권 (제2단원 :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 (제6과) 은혜의 복음

- 본문 : 에베소서 2:1-10
- 요절 :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 2:8)
- 찬송 : 405장(새찬송가 305장), 410장(새찬송가 310장)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의 내용을 ‘은혜의 복음’ ‘사랑의 복음’ ‘권능의 복음’ ‘치료의 복음’ ‘천국의 복음’ 이렇게 다섯 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복음의 내용 가운데서 은혜를 제외한다면 결코 복음을 일컬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에 표현된 은혜가 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이미 75세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호와와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이는 그의 믿음이 그만큼 위대하였음을 증거해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선민 이스라엘의 조상과 또한 믿음의 조상이 된 데에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전제되어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결코 선민의 조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였거나 힘쓰고 애쓴 결과가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롬 9:16).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성경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11~12)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있는 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미련한 자, 약한 자, 없는 자들을 택하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때가 되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율법 아래 살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정죄 받게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갈 4:4~5).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인생들이 결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공로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남에게 종살이하던 자들이 그 매임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었듯이, 예수님은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롬 8:1~2)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를 사단으로부터 해방시키시는 선언입니다.

영벌에 처할 운명을 지니고 태어나서 죄 중에서 살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게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위해 죽도록 헌신하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유대인들이 커다란 긍지를 가졌던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같은 긍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근거에 대해서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이 선택받게 된 근거로 그가 할례를 행하였으며 또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의인이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창 15:6)라고 하심으로, 아브라함이 얻은 의(義)가 그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롬 4:1~3). 이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우리가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엡 2:8).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롬 3:24).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성도로 택하신 것과 독생자를 주신 것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행위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은혜의 복음을 힘써 이웃에게 전해야 하겠습니다.

예수교 위한 은혜와 진리교회

- 안양 :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 수원 : 수원시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 안산 :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 과천 :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 시흥 :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 광명 :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 부곡 :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 판교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 산본 :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 부천 :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 시화 :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 영통 :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 구리 :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 포일 :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 전원 :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 김포 :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 평택 :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 안중 : 평택시 안중읍 송담1로 144 T.031-684-3731
- 천안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 전주(평화)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 양주 :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 원주 :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 강남 :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 장유 :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 39-11 (관동동) T.055-312-3731
- 용인 :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 영종도 :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남로41번길30 T.042-471-3736
- 광주 : 경기도 광주시오포읍 마루들길168 T.031-763-3720
- 남양 :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 대구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 서산 :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 울진 :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 동탄 :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 당진 :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채운동) T.041-353-3731
- 세종 :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 전주(효자)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 인제 : 강원도 인제군 상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 경주 :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 아산 :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 충주 :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 진위(제2수양관) :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 산서 :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 진주 :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 온양 :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